

# 돌과 쇠에 새겨진 역사의 흔적 찾아낸다

## 고대사 비밀 캐는 금석문 연구성과 잇따라 출간

인간의 기억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 口碑는 기억의 금석문이지만, 몇 세대의 죽음을 거치면서 변형되고 또 소멸한다. 책은 인간의 기억을 확장시킨 위대한 발명품이다. 그러나 종이는 허약하다. 진시왕의 분서갱유나 히틀러의 현대판 분서는 책이란 불앞의 종이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옛날부터 권력자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더 내구성있는 기억수단을 발명했다. 고대 오리엔트 왕들의 점토나 피라미드 등이 그것이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다. 김일성 동상도 금석문인 것이다. 전신상 아래에 혁혁한 일대기가 적혀 있을 터이다.

### 한국고대사 탐사의 파이프라인

비유가 아닌 글자 그대로의 金石文은 쇠붙이나 돌붙이에 새겨넣은 글그림을 뜻한다. 비장의 僞書와는 다르게 눈뜬 사람들 모두가 일종의 증인이자 목격자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다고 진실하다고 평가되는 역사적 자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전란으로 일차사료가 소실·파괴되어 금석문은 잃어버린 역사 복원의 보고”라고 원광대 조동원 교수는 말한다. 전적·고문서와 함께 3대 사료 중의 하나로 회자되는 금석문은 특히 우리나라 고대사 탐사의 거의 유일한 파이프라인이다.

고구려의 「유기」 「신집」, 백제의 「서기」, 신라의 「국사」 등 1145년 고려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 이전의 역사서들은 크고작은 많은 전란병화와 두 차례의 ‘분서’ 사건 탓에 소멸되었다고 한다. 그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일찍이 조선후기 이름난 실학자였던 이덕무는 이만운으로부터 전문(傳聞)한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고대의 서적들이 없어지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일이 있다. 즉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 장수 이세적은 우리나라의 서적들이 중국보다 뒤지지 않는 데에 시기심이 발동한 나머지 모든 책을 평양에 모아 불살라버렸다는 것이다. 또한 936년 견훤은 자기가 세운 후백제가 고려에 망하자 스스로 수집한 삼국의 유서(遺書)들을 전주에서 불태워버렸다고 한다. 과연 이만운이 어떤 근거로 이같은 이야기를 한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알기로는 박은식도 이세적의 유독(遺毒)을 통탄한 바 있다.”(「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창작과비평사) 중에서)

그래서 단재 신채호는 사료수집과 그 비판

을 중요시하면서 옛 비문 등 금석문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금석문 연구를 통해 재발견된 역사적 사실은 수두룩하다. 광개토왕비를 둘러싼 한일학계의 논쟁은 그 자체로 양국 자존심 대결의 기념비이기도 하다. 5세기경 고구려인들의 天下意識과 天孫國意識은 금석문을 통해서만 확인될 뿐이다. 신라의 임신서기석은 불교수용 이전에 유교를 통해 국가제도를 정비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6세기초의 영일맹수리비와 울진봉평비에서 보이는 ‘殺牛儀式’ 역시 유교를 통해 국가의례 및 사상을 통일하고자 한 노력의 흔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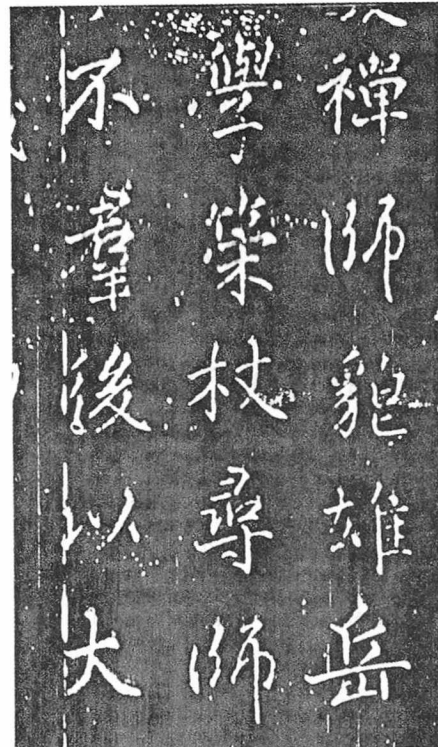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으로 비교적 소상히 탐색할 수 있는 나말려초의 연구에서도 금석문은 진가를 발휘한다.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와 고달원 원종대사 혜진탑비 등은 “선종사 이외에 교종·유학·미륵신앙·풍수지리설, 그리고 편찬사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나말려초의 격동기를 재구성할 수 있는 요긴한 자료를 제공한다.” 금석문 덕분에 당시 사상계의 지형도에 고도와 명암을 표시할 수 있었던 셈이다.

조선시대의 금석은 사료로서의 가치보다는 서예사 자료면에서 더 중요성을 지닌다. 서예의 대가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는 “금석문에 대한 실증적인 깊은 천착과 탐구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다.”

사료가 적은 한국고대사의 경우 금석문과 고고학의 성과를 적극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금석학의 성과는 소수의 열정적인 학자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편이다. 금석문 자료집과 연구논문은 ‘오십보 백보’ 식으로 많은 편에 속하지만, ‘금석학’ 자체를 다룬 책은 단한권도 없고 금석학 논문집조차 전무하다. 한국금석학의 일인자인 태동고전연구소의 임창순 소장은 “현재까지의 논문이라도 한데 묶어서 그 전모를 한 책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 두차례 분서와 수차례 병란때 史書소멸해

해방 이후 출간된 금석문 자료집은 「韓國金石文追補」(이난영, 중대출판부, 1968), 「韓國金石文遺文」(황수영, 일지사, 1976), 「韓國美術全集11-서예편」(동화출판공사, 1980), 「韓國의 美6-서예편」(임창순 감수, 중앙일보, 1981), 「韓國金石文大系」, 조동원, 원광



광개토왕릉비문(右)과 보림사보조선사장성 탐비.



대출판부) 등이 있다. 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서울 금석문 대관」(1987), 「시흥 금석 총람」(1988) 등 각 지방별로 금석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금석의 書目을 색인형식으로 정리한 책으로는 「韓國金石總目」(장충식, 동국대출판부, 1984)과 「金石文 資料編覽」(김동수, 경인문화사) 등이 손꼽힌다.

한편 작년에는 정선문화연구원에서 95년부터 50년간 20억원을 들여 1백50권 분량의 「한국금석문자료집」 간행을 발표해 신문에 대서 특필되기도 했다. 올해초에는 「高麗墓地銘集成」(김용선, 한림대출판부)과 「智證大師碑銘小考」(정광, 경서원) 등 매우 특화된 금석문 자료집이 출간됐다. 「지증대사비명소고」는 지증대사비문을 중심으로 정진대사·상봉대사 등을 복원·연구한 책이다. “그 연구의 치밀·방대함은 삼국불교전래사와 한국선종 초기사상발달사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는 평을 들었다.

최근엔 「金石文으로 본 百濟武寧王의 世界-王의 世上은 大王의 世界」(소진철, 원광대출판부)가 출간됐다. 무령왕능의 誌石, 일본국보인 隅田八幡鏡과 七支刀에 새겨진 銘文을 통해 5, 6세기 백제와 왜나라의 관계를 새롭게 규명한 연구논문집이다. 4편의 수록논문 「우전팔번神社 소장 인물화상경의 명문을 보고」 「일본서기」의 天皇崩 百濟王薨은 날조 「칠지도 명문의 새로운 해석」은 발표될 때마다

한일학계에 화제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소교수는 “원래 역사의 해석은 금석문에 근거해야 하는데, 한일고대사에 대한 이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의 연구는 적은 데에다, 사회적인 이해마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4편의 논문을 쓰는데 애로가 많았다”고 말한다.

### 한일고대사 풀어준 무령왕능 誌石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왜는 백제의 속국이였다. 그같은 결론에 이르는 데는 1971년 7월 5일 발견된 백제 무령왕능의 誌石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국보 스다하치망鏡의 명문에 보이는 ‘斯麻’는 일본에서 역사의 수수께끼로 치부하는 인물이었었는데, 무령왕능 지식에서도 그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것에 착안한 소교수는 6세기전 백제의 ‘大王’이 왜의 ‘王’을 봉건제후처럼 거느렸다는 학설을 이끌어냈다.

또한 「일본서기」에 “天皇 崩(붕), 百濟王薨(흥)”이란 구절을 증거로 대며 일본이 백제를 지배했다는 일본학설에 대해, 오히려 그 반대임을 증명하게 된 단초도 무령왕능 지식에 있었다. 그 지식은 무령왕의 죽음을 “崩御”로 표현한 것이다. ‘붕’은天子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로서, 백제의 주체식과 일본의 제후국임을 증명한다는 논리이다.

—김중식 기자